

# ‘장차’의 ‘현실’을 그리는 당찬 여자, 색녀들의 제2경기를 알렸으니

만 화 《마님 난봉가》 낸



장 차 현 실

“좋더냐 좋더라 얼마나 좋더냐 불도 안 땀 냉방에 진땀이 나도록 좋더라” 민요 <어랑타령>의 한 소절이다. 어랑타령 한 가락 간드러지게 뽑아내는 여인네가 있다면 그것 밝히는 것인가, 솔직한 것인가. 발칙한 색녀들의 대서사를 통해 속 시원히 답하는 책이 있으니, 장차현실(41) 씨의 신작만화 《마님 난봉가》가 그것이다. 제목부터 별난 《마님 난봉가》를 200퍼센트 즐기기 위해선 장차씨의 돋보이는 이력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장차씨의 첫 책은 19세미만 구독불가 딱지가 붙은 《색녀열전》(이프, 2002)임을,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누구보다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임을 말이다.

“1997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에 ‘색녀열전’을 연재했습니다. 전통민담에

숨어 있는 용기백배한 색녀들을 찾아보자는 기획 의도가 마음에 들었지요. 지금이야 당찬 색녀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당시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억압된 성을 해소할 계기다 싶어 연재를 시작했는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지요. 색녀열전을 연재하는 동안 제 작업실은 상담론을 즐기는 토론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색녀열전》의 후속편인 《마님 난봉가》를 보노라면 음흉한 웃음을 그칠 수 없다. 울퉁불퉁한 머슴 하나가 마당에서 부지런히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작만지작, 구들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던 ‘전형적 마님’들을 장차씨는 보기 좋게 배반한다. 장차씨의 마님들은 그야말로 색색! 다르다. 마님들 왈, “아아, 지긋지긋한 남성주의

서사여, 돌쇠야 어쭙잖은 제스처일랑은 그만두고 냉큼 들어와 몸을 즐겁게 해보려다.” 이런 마당이니 여기 자리에 어찌 마님만 자리할까.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방천지 여인네들이 “서방님임, 도련님임” 부지런히 불러댄다. 좋아라 치마폭을 들춰 파고드는 서방님도 여럿이요, 화들짝 출행랑치는 도련님도 여럿이다.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거죠. 《마님 난봉가》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어디 색시하기나 하나요. 한결같이 평범하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요. 성에 대한 무능함을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한 선택권을 남성에게 맡겨버리는 건 삶의 주체성까지 내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 만화를 보고 ‘어디 이런 걸 그려’라고 말

하는 쪽은 남성만이 아니지요. 밝히지는 말  
되 솔직해지자고, 손톱만큼의 욕구도 당신  
들 속에는 없느냐고 말을 해주고 싶죠.”

《마님 난봉가》는 여성해방이라는 낡  
은 페미니즘을 강의하지 않는다. 장차씨가  
바라는 관계(?)는 ‘경쾌하고 발랄하게 함  
께 즐기기’다. 여성들이 성에 대한 소극성  
을 벗었으니 남성들은 올라미 같은 권위를  
벗어버려라. 권위를 벗어버린 맨몸으로 함  
일할 때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  
다. “부부사이가 최대한 음란했으면 좋겠  
다”는 장차씨의 발언이 담백하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음란하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경지 같은 것이지요. 결혼생활 가운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유희가 성인  
것 같습니다. 시골 부부들은 오전 한나절  
부지런히 일한 뒤 참을 먹고서 불쑥 관계를  
갖는다고 하지요. 화장 안한 구릿빛 얼굴을  
훑 묻은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갖는 그들  
의 관계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겁니다.”

장차씨의 야설이 거침없이 이어진  
다. 위험수위를 간당거리는 장차씨의 야설  
은 대외홍보용이 아니다. 장차현실 씨가 장  
차의 현실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여성’ 과  
‘장애.’ 장차씨는 그 둘에 관해서라면 할말  
못할 말 똑소리나게 말해 왔다. ‘여성’은 몰  
라도 사지 멀쩡한 여자가 ‘장애’를 말하는  
것이 무엇 대단하냐고 말을 하겠지만, 다운  
증후군 딸 은혜를 품고 헤친 세월만 15년이  
다. “내 딸 다운증후군이  
요, 그 아이 지켜온 엄마  
로서 박한 세상에 대  
고 할말 좀 해보겠소”라



는 장차씨의 모양새는 참으로 당당하다.

“12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은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다를 것  
없이 내 딸 기똥차게 키워보자 싶었지요.  
‘정말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냐’ 하고 사  
람들이 기특해할 때면 흐뭇했습니다. 그런  
데 웬걸요.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나니  
영락없는 바보일 뿐이더군요. 세상 사람들  
이 변하지 않고서는 무능한 장애인 가족이  
라는 멍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  
게 깨달았습니다.”

장차씨는 은혜가 겪는 사춘기를 지  
켜보며 새롭게 전착할 주제를 갖게 됐다.  
여성장애인으로 은혜가 자라야 하는 만큼,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성에 관해 말해 보겠  
다는 것이다. 당찬 색녀들의 이야기로, 당  
찬 장애가족의 이야기로 쾌락과 감동의 청  
룡열차를 번갈아 태우더니, 장차씨의 운행  
솜씨가 한층 노련해졌음이다.

“성인 여성장애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스스로가 여성성을 억압하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문  
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이 건강하게 사  
랑하고 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의 장애 아  
이가 성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낼 때, 부모는  
좋은 교육의 기회라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씨가 당찬 색녀인지라 사춘기  
딸 은혜와의 대화는 어느 모녀보다 자유롭  
다. “너도 그것이 좋아 보이더냐”하며 키스  
가 무엇인지, 자위가 무엇인지 장차씨는 은  
혜에게 친근하게 알려준다.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것이  
장차씨의 바람이었는데, 장차의  
현실을 위해 의기투합한 모녀는

친구의 제1덕목인 ‘의리’를 이미 나눠 갖  
고 있었다.

“제게 만화는 세상과 통하는 통로 같  
은 것입니다. ‘만화만이 나의 인생’ 하고 엄  
숙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메시  
지가 먼저였지요. 여성의 성을 대변한 만화  
가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주었다면, 은혜  
와의 일상을 담은 만화는 행복지수를 높여  
주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세상의 괴  
물을 만화로 쓰러뜨려보자는 소명의식 같  
은 것도 생겼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더군요.  
‘만화가 이상해요, 점점 계몽적으로 변해  
가요’ 하고 말이지요.”

장차씨는 현재 청탁받은 연재작업을  
반으로 줄이고 은혜를 돌보는 데 애정을 쏟  
고 있다. 패혈증으로 은혜의 목숨이 생사를  
오갔던, 돌이키기도 아득한 일을 최근 겪은  
때문이다. 장차씨는 틈틈이 은혜와 함께 자  
신의 또 다른 특기인 지점토인형 만들기를  
즐긴다. 질투 날 만큼 씩씩한 모녀에게 동  
정은 필요 없다. 당찬 색녀 장차씨는 열심  
히 장미꽃을 만드는 은혜를 보며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사춘기, 꽃처럼 피어  
나는 저 예쁜 것을 어떻게 하면 요조색녀로  
둔갑시키지?”

장차씨가 오늘 《마님 난봉가》로 색  
녀들의 제2경기를 알렸다. 《마님 난봉가》  
가 잊혀지기 전에 장차씨는 재빨리 제3경  
기를 마련할 것이다. 장애여성의 성을 말하  
는 요조색녀 은혜가 홍코너에, 달갈로 바위  
치기지 하며 득의만만한 세상이 청코너에  
나선다. 짙한 감동이 기대되는 제3경기를  
기대들 하시라. **◆◆**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